

Living the Lotus 3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34



Rissho Kosei-kai in India: Delhi, Gaya, and Assam

Living the Lotus
Vol. 234 (March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쿄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덕분에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鏡)



● ‘제27회 니와노 평화상’ 수상자 엘라 라메쉬 배트

인간은 자연의 ‘파괴자’

새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디만, 우리들은 자신 이외의 모든 것에 의해 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의 경우, 이것이 없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천지자연의 덕분’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천지자연의 덕분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지성(知性)이 발달해 있는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하며 계속해서 편리함과 쾌적함을 찾아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대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 인간은 ‘파괴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임제종(臨濟宗)의 아우카와 하쿠도(鮎川博道) 스님은 ‘다른 동식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말로 유머러스하게 인간의 횡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이 인간들아, 우리는 오랫동안 살려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면서 모두 함께 이 지구를 소중히 여겨 왔다. 그런데 신참인 너희들이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고(중략), 우리들 보다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제멋대로 구는 짓은 이제 그만두라고!’(대본산 묘심사(妙心寺) ‘법화의 창’ 중에서)

이어서 아우카와 스님은 천지자연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지구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인류의 지혜라고 단언하십니다.

‘초목국토실개성불(草木國土悉皆成佛)’ ‘실유(悉有)는 불성이나니’—— 불교에서는 산과 강, 풀, 나무 등 모든 존재(실유)는 모두 똑같은 부처의 생명의 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우메하라 타케시(梅原猛:1925-2019)씨는 이 사상을 인류 공통의 것으로 하여, 사람이 대자연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깊이 반성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괴로움을 겪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모두가 태양과 공기, 물 덕분에 느끼고 진지하게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 이라 말할 수 있는 행복

이전에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에 갔었을 때,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배 위에서 보고 감동하여 마음이 깨끗이 씻김과 동시에, 대자연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 정원에 피는 화초를 접하면서 열심히 삶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스팔트의 틈새에 피어나는 민들레의 굳고 강인함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경우가 있는 것도 생명의 일체감을 이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신과 전문의는 꽃이나 초목에 마음을 두고 일체화(一體化)해 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힘이 솟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태양과 물, 공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도 천지자연의 ‘덕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은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물 덕분에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조금 양에 차지 않게 먹고, 먹었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하며, 물 등의 자원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불편 부족이나 노력과 시간도 ‘덕분’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우리들은 구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불만과 화가 있으면 도저히 ‘덕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천지자연의 섭리(진리)를 음미하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면, 가령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덕분’을 깨닫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마음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회가 창립된 이래 전해져 온 그 기쁨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널리 펼쳐서 여러분의 ‘덕분’이 울려 퍼지는 지구를 지켜 나갑시다.

(『교성』 2024년3월호)



‘책임감과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직장 만들어 가기’를 목표로

입정교성회 스리랑카 교회 라토나야케 스닷다

입정교성회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입회하셨습니까?

입정교성회에는 2010년 장모님(가정 거점장)에게 인도되어 입회하였습니다. 현재 입정교성회 스리랑카 교회 도량은 2017년6월에 낙성하였으며, 집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회한 당시의 이전 도량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장모님을 오토바이에 태워 약 1시간 반 걸려 도량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서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것을 일과로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도량에 들어가 보면 장엄한 본존님이 안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으며, 또한 승가 여러분들이 항상 미소를 지으며 합장하며 인사를 해 주셔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스리랑카는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 사원에 훌륭한 부처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만, 교성회의 본존님에게서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저는, 교성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가르침인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조금씩 교성회 활동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행·정진을 거듭하여 2023년 본존님을 수여받게 되었군요.

본존님을 수여받는 것은 저의 염원이었습니다. 입정교성회 스리랑카 교회에서 거행된 ‘본존님 수여식’ 이 끝나고, 스즈키 히로노부 교회장님께서



스리랑카 도량에서 열린 청년 세미나 독경공양에서 목탁역 할을 하고 있는 스닷다씨

집까지 와 주셔서 본존님 안치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많은 승가분들이 안치식에 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본존님을 수여받고 나서는, 아침 저녁 독경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속에 안겨 있다는 것이 깊이 느껴져서, 직장에서도 안심하고 안정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집에 돌아온 후에는 하루의 감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도 문제에 계속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독경공양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콜롬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주방과 홀, 손님 접대 등, 스태프 약 50명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가장 큰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광



스리랑카 도량에서 설법을 하는 스닷다씨

과 쇼핑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덕분에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도 매일 국내외에서 온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르침을 살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성회에서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와 ‘뒷모습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직장 스텝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하게 지시를 하기보다, 먼저 내가 바뀌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책임자인 제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는 것 하나라도 스텝들에게 이것저것 말로 지시를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행동에 옮겨서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성회에서 배운 ‘조화’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화를 이룬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매일 스텝들이 일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능력이나 특성을 인정함으로써 신뢰관계와 결속력이 높아져 팀워크도 한단계 향상하고 있습니다.

범화경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경문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 범화경의 여래수량품을 독송할 때마다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라’라는 구절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본존님 권청 후, 법당 앞에 손을 모으는 스닷다씨의 가족

우리들이 구제받도록 가르침을 설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생명도 또한 영원하다는 것이 설해져 있습니다. 여래수량품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 옆에 계시주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교성회에 입회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성회 승가 여러분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미소 띤 얼굴로 합장하며 인사를 해 주십니다. 저는 긴 세월의 습관과 조금 쑥스러운 것도 있어서, 이전에는 상대방이 인사를 할 때까지 내 쪽에서 인사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직장 스텝과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교성회에 입회를 해서 가르침을 배운 덕분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닷다가(家)의 본존님 권청날, 스즈키 교회장님(左)도사, 참집자 일동과 함께 독경공양을 드리는 스닷다씨(右)



작년10월, 아들의 대학졸업식날에

마지막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앞으로의 수행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현재 가장 큰 바람은 제 아내가 스리랑카 교회에 참배해서, 도량에서 함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제 아내는 일이 바빠서 집에서 법좌가 열릴 때에는 참가해줍니다만, 도량까지는 좀처럼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함께 도량에 가서, 스즈키 교회장님의 법화를 듣거나, 법좌에 참가해서 승가 여러분과 교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더욱 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가정에서 실천해서, 아내에게 교성회와 가르침의 훌륭함을 이해 받도록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세계를 커다란 승가로 만들자

불성에 호응하는 승가가 되자

입정교성회 개조님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부처와 사람」 「사람과 사람」이라는 상호간의 호응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전체는 만물만상이 상호 호응,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상태로 성립하고 있으며 인간세계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호 호응 작용을 아주 높고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정 외엔 없습니다. 「자비」 외엔 없습니다. 애정이 애정을 부르고 자비가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한 신문 사설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상경한 수녀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에서 허름한 행색의 남자로부터 돈을 강요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녀님들은 옛날의 비구나 비구니처럼 금전의 사유(私有)가 금지되어 있어 수도원의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할 때도 필요한 최소 비용밖에 지닐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당황해 하며 작은 지갑을 꺼내 돈을 확인하고는 「돌아갈 기차비를 제외하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남은 돈을 모두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남자가 「그러면 도시락도 살 수 없겠네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니 좀 드릴게요.」 하며 천원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녀님은 거절하였지만 결국엔 「고맙습니다」 하며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한 사람은 글 마지막에 「그 남자도 사람에게 베푸는 기쁨을 느껴본 만큼 이번 일이 “주는 인생”으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아,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이구나!」 라고 새삼 감동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저속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매스컴은 그런 이야기를 더 크게 문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저기 있을 법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애정을 부른다」 는 상호호응작용이 키워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신앙인은 세상의 곱지 않은 부분에 눈을 감고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부분은 역시 「불성」이 한순간에 빛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서로가 이야기하여 서로 감동함으로써 그 상호호응에 의해 서로의 인간성이 한 단계 향상되어 갈 것입니다. 입정교성회는 이와 같은 작용을 목표로 하는 승가입니다. 먼저 이 승가를 훌륭하게 완성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작용을 무한하게 넓혀 인류사회 전체를 커다란 승가로 만드는 꿈과 이상을 가집시다. 불도의 완성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니와노 닛쿄 범화집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Donate-a-Meal Movement

한끼 바치기 운동

입정교성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 끼 바치기 운동’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기뻐한다

1. 실천 스타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어떤 방식으로든〉

‘한 끼 바치기 운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끼 바치기 운동이 중요시하는 정신은 ‘동비(同悲)’ ‘기도’ ‘보시’입니다. 이 세가지 정신을 기반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마음을 전달하는 실천의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이 ‘한끼를 걸러 전 세계의 사람들의 행복을 기도하며 헌금을 한다’는, 기본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끼’를, ‘한 번의 식사’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된 지금,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가치관 또한 종류가 다양 해졌습니다. 무엇이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 주는지 (사람마다)모두 다르듯이, 마음을 쓰는 방법 또한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세 가지 정신’을 ‘나 다운 행동’으로 표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딱 맞는 ‘나 다운 한 끼’로, 배려의 테두리를 넓혀 나갑시다.

2. 실천 단계

스텝1 ‘나 다운 한끼 실천’을 정한다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지를 정합니다.

언제 실천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세번의 식사 중의 한끼, 혹은 기호품이나 취미 등 내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무언가로 ‘나 다운 한끼 실천’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시

■식사나 간식을 걸러본다

- 일주일에 한번, 점심식사를 거른다
- 매월 몇 번, 또는 한 번이라도 간식이나 카페에 가는 것을 참는다.
- 매주 일요일 점심은 빵 한 개로 정하고, 그 빵을 모두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삼는다.

■식사 외에도, 생활 스타일에 맞춰서 무엇을 함께 나눌지 선택하자!

- 한 달에 2번, 게임에 드는 돈을 쓰지 않고 참는다.
- 매월 1번, 네일아트를 참는다.
- 밤 늦게까지 잠들고 싶지 않은 주말, 빨리 취침을 하여 전기세를 절약한 만큼을 헌금한다.(나를 보살피고, 보살핀 만큼을 힘든 상황에 놓인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나누기)
- 버스나 전철의 한 정거장 정도를 걸어서 가기로 정하고, 그 만큼을 함께 나눈다.(나의 건강을 챙기고 신경 쓴 기쁨을 나누기)

■실천하는 날도 ‘나 답게’ 설정하자!

- 기쁜 일이 일어난 날에 ‘나누기’를 실천하기.
- 가족과 친구의 생일, 기념일 등, 나에게 있어 특별한 날에 실천하기.
- 좋아하는 TV방송이 방영되는 날에 실천하기.





STEP 2 내가 정한 것을 바치기

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바침으로써, 배고픔과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감각을 잠깐 동안이나마 체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과 분쟁에 직면하여, 그러한 상황이 일상인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STEP 3 전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행복과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원합니다. 입정교성회에서는 그 실현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의 말

이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배려하기를
먼저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님)

이 ‘기도의 말’에 국한되지 말고 독창적으로 말과 스타일을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과 바람에 걸맞은 방식으로 기도를 올려주세요.

STEP 4 헌금을 한다

절약한 만큼의 돈을, 빈곤과 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헌금합니다. ‘입정교성회 한끼 바치기 평화기금’ 지원에 함께 참가하실 분은 ‘한끼 평화기금’으로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한끼 평화기금 입금계좌

みずほ銀行 中野支店 普通預金

【口座番号】519418 立正佼成会 一食平和基金

※현재 온라인 결제 서비스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단체를 선택하여, 헌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키워 나갑니다.

3. ‘마음이 기쁜 한 끼’를 테마로

~지금, 한끼 바치기 운동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을 일으켰는데 ‘고마워’하는 말이 들려온다면 아주 기쁘기 마련입니다. 이때 들었던 기쁜 마음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기쁜 마음과 자랑스러움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배려심’이 발휘되어 더욱 크게 키워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끼 바치기 운동을 실천했을 때, 부디 내 마음에 눈을 돌려주세요. 좋아하는 것을 참는 고통,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넓혀지고 있는 배려심, 목표대로 실천했다는 성취감 - 당신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퍼지고 있을까요.

한끼 바치기 운동은 전 세계의 누군가를 위한 실천임과 동시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마음이 기뻐하는 한끼’ 체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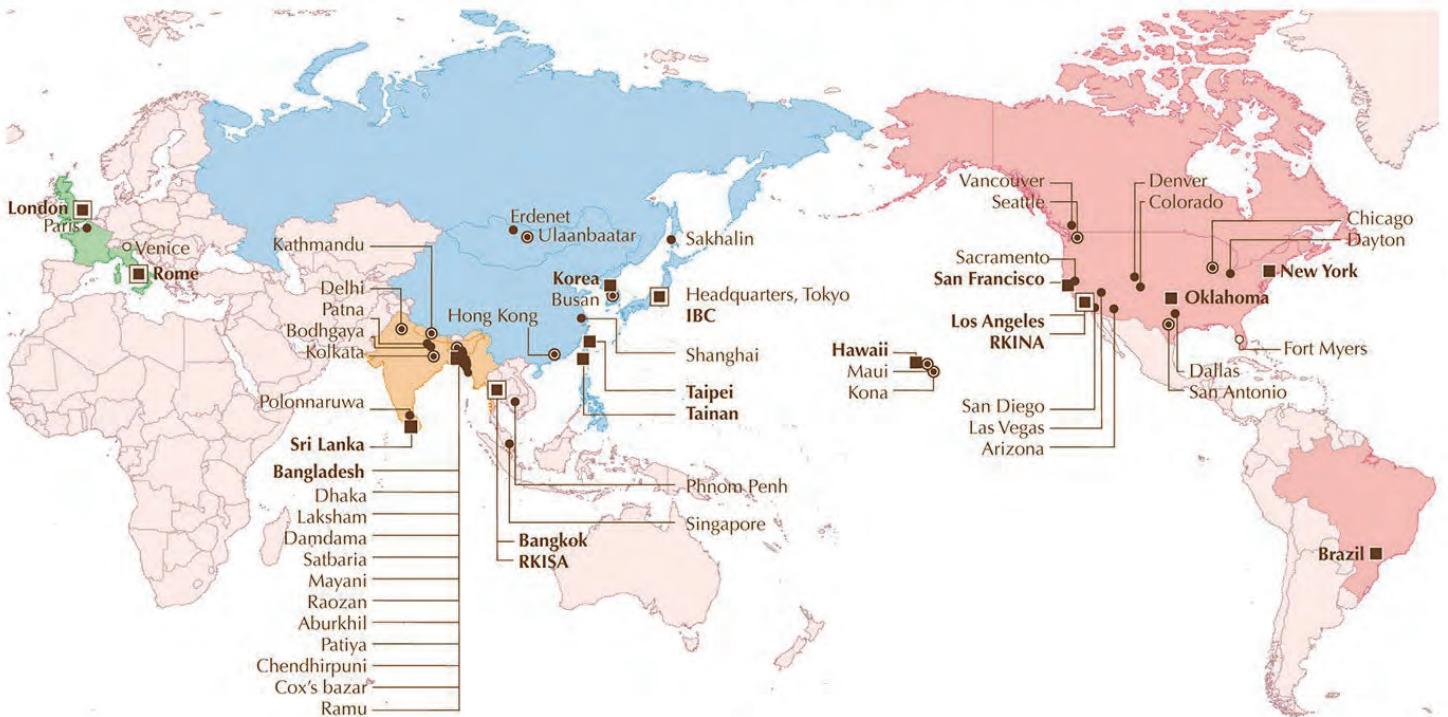
우간다 난민 캠프의 아이들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